

대학생의 성희롱 대처방안 차이 연구

하 혜 숙[†]

서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성희롱 대처방안을 분석해봄으로써 이를 통하여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과 예방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유형, 행위유형, 그리고 반복성의 조건이 각각 다른 12가지의 사례를 제시한 후 대처방안을 살펴보았는데, 대처방안은 상담의향, 대응수준, 처벌강도의 3가지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여자 대학생 936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남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611명의 남자 대학생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언어형 성희롱 사례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상담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체형 성희롱 사례들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상담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응수준에서는, 개인적 소극적 대응에는 주로 남학생들의 응답률이 높았고 공식적 적극적 대응에는 여학생들의 응답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처벌강도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수준에 대해 남학생들의 응답률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고 상대적으로 처벌수준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응답에는 여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성희롱 상담 및 예방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성희롱 상담, 성희롱 대처 양식, 성희롱 모호 영역

[†] 교신저자 : 하혜숙,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 전문위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73동 223호
Tel:- 02-880-8055, E-mail : graceha@hanmail.net

상담 활동은 집단과 개인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적 기능(remedial role)과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예상하고 미리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기능(preventive role)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기능을 획득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적 기능(educative-developmental role)을 한다(Gelso, 2001). 예를 들면 대학 내 상담센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물 중독이나 자살, 성희롱·성폭력 등과 같은 문제에 관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나 기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대학 내의 성희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상담 활동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대학 내 성희롱은 개인에게 단순히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결정적 시기에 중요한 장애를 가져다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학 내의 성희롱은 일반적인 범죄나 직장 내 성희롱보다 문제 해결이 더 복잡하며 피해 후유증도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대학 내의 성희롱은 생활맥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 즉 교수와 학생, 친한 선배와 후배, 학과나 동아리의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의 맥락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문제 상황이 피해자의 생활맥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의 대학 생활 및 진로문제와도 어떠한 형태로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혼자 고민하

면서 대학 생활의 장애를 지속적으로 겪게 될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해서 성희롱 경험과 이로 인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대학생들의 진로 변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Naomi, 2005; Stockdale, 1996). 따라서 대학 내 성희롱의 실태와 특성을 규명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및 평가하는 연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에서 실시한 대학생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 조사(2003)의 결과에 의하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후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면 불쾌하지만 분위기나 관계를 고려하여 참는 경우가 39.1%,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21.4%인 반면 전문 상담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의논해 보는 경우는 0.6%에 불과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0.7%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가 23.8%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내의 성희롱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담과 같은 전문적 활동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직장이나 공공단체 또는 학교와 같은 단체 생활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행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성희롱은 매우 유동적이고 광범위한 유형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한

상황적 맥락, 문화적 맥락, 당사자들의 관계나 개인적 배경 심지어 피해자의 주관성까지도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념이나 범주에 대한 공통 인식의 부재 즉 모호 영역(gray area)이 폭넓게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윤영민, 2002; 이미정, 2002). 이러한 성희롱의 특징은 이 문제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정책 수립을 촉진한 것은 1999년에 제정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다.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교육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의 법률에 걸쳐 있으며, 이러한 법률들을 근거로 대학 내의 성희롱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들의 시행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의 성희롱 예방정책, 피해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기구 및 상담소 설치 등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 집계(미발표 집계)에 의하면 전국 대학의 성희롱 고충처리 기구 및 상담소의 설치 형태를 보면, ① 독립 기구로서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② 학내 관련 상담기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③ 학내 관련 행정조직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파악할 수 있다. 국공립대학과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독립 기구로서 상담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와 학생생활연구소와 같은 상담기구 내에 하나의 부서나 기능으로서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전문대학의 경우 학내 행정조직(학생처, 복지처, 교학처, 교무처 등)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담창구의 설치와

함께 남녀상담원을 각각 1인 이상 배정하도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행정지도 아래 상담소나 고충처리 기구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구들의 기능 정도는 학교마다 차이가 크며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희롱은 객관적 요건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 심리에 의하여 개념이 성립한다(York, 1989). 왜냐하면 성희롱이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말이나 행동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원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희롱은 사람들마다 인식하는 형태가 다를 수 있고, 같은 행위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수용자의 느낌이 다를 수 있다(김양희, 1995; Frazier et al., 1995). 특히 성희롱은 그 성격상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희롱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성희롱의 경우,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제3자 사이에 인식의 격차가 존재하고(진정희, 2003; Thacker & Gohmann, 1993), 특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성적 형태들에 대해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으며(Wiener, 1995), 일반적으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성희롱을 인식하고 있다(Gutek & O’Conner, 1995).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성 간에도 인식의 격차가 존재해서 같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개인의 성 개방성향, 성희롱 경험, 성희롱 행사자의 신분, 직장 풍토, 직무특성 등에 따라서

성희롱 태도에 차이가 날 수 있다(임창희·홍용기, 1996). 성희롱은 타인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그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성희롱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와 관련이 있다(김정인 외, 2001). 이처럼 성희롱은 개인의 배경변인에 의해 달리 지각될 수 있는데, 관련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특히 성 차이에 의해 성희롱에 대한 지각이 달리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희롱의 정의에 대해 남녀의 차이가 다른 어떤 변수들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며(Reese & Lindenberg, 1999), 동일한 행동에 대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성희롱 행위로 간주하거나 공격적인 것을 지각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 관련 연구들의 일관된 결과이다(Gutek, Morash & Cohen, 1983; Powell, 1986).

성희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남녀의 시각차가 드러난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피해자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인·최상진·박정열, 2002). 남자와 여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성적 행태를 각각 다르게 평가하게 되며(Wiener, 1995), 사회적·성적 행태에서 여자는 주로 대상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남자는 주로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행태를 두고서 남자는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지만 여자는 성희롱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에게 연애편지를 보낼 때 남자는 그러한 사랑의 의사표시 형태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만 그 편지를 받는 여자 직원은 성희롱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Pinkston, 1993). 성희롱에 대한 대응은 대체로 두개의 축(간접대응-직접대응, 개인적 시도-제3자 개입)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Gutek & Koss, 1993). 성희롱 대처방안에 관한 도식에서 하나의 축은 성희롱 관련 문제를 경험할 경우 혼자서 대처하려는 ‘개인적 시도’와, 상담자나 감독자, 의사, 배우자, 동료, 또는 외부 중재인이나 관련 단체(인권위원회, 법률기구 등) 등의 외부인을 포함시키려는 시도로서 ‘제3자 개입’으로 나눌 수 있다. 또 다른 한 축은 무시하기, 피하기, 달래기 등과 같은 ‘간접대응’과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맞서는 ‘직접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성희롱 대처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의 결과를 보면,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여학생의 약 50%가량이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50%는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현화·고은영, 2001). 일반적으로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실제 성희롱 피해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일단 피해 당사자가 되면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를 외적인 환경 탓으로 돌리거나 상황을 재해석함으로써 그 행위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처하는 경향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Gruber & Bjorn, 1982). 이러한 기존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성희롱 사례에 대한 대학생들의 성희롱 대처 방안을 상담 의향, 대응 수준, 처벌 강도의 3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는 여자 대학생들의 성희롱 상담의향, 대응수준, 처벌 강도는 어떠한가? 이러한 대처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특성은 무엇인가?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과 지방에 소재하는 7개 대학에 재학 중인 14학년 대학생과 대학원 여학생 936명과 남학생 611명이다(인문사회계열 54.8%, 자연계열 34.8%, 예체능계열 10.4%).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대학 내 공식 기구(예를 들면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의 상담과 대학 내 여학생 모임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된 사례들을 상황 맥락, 사건 구조에 따라 12개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처럼 상황 맥락이나 구조가 고정된 하나의 개념을 활용할 경우 성희롱 현상의 다양성, 맥락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의미 전달이 개인에 따라 불분명하게 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Arvey & Cavanaugh, 1995). 여기서 상황 맥락이란 성희롱 발생 장소를 강의실, 실험실, MT, 뒷풀이 등 대학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다양한 공간적 맥락을 의미하며, 사건 구조란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속의 인간관계 유형, 행위 유형 그리고 반복성 여부 등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대학 내에서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성희롱을 첫째

교수, 선배 또는 동기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둘째 일회성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언어 또는 신체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12개로 유형화 하였다.

다음으로 성희롱에 대한 대학생들의 대처방안은 상담 의향(전문상담기관을 이용하여 상담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가?)과 대응 수준(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여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처벌강도(가해자를 처벌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이 가운데 상담의향을 묻는 질문의 선택지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대응수준과 처벌강도를 묻는 질문의 선택지는 범주형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의 선택지를 범주형으로 제시한 이유는 대학생들이 성희롱을 실제 경험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행태로 대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대응과 처벌의 수준이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5점 리커트 척도와 비교 분석이 용이하다.

자료 분석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연구 수행에 필요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관한 자료 수집을 끝낸 후 개인배경 변인인 성별 차이와, 관계유형, 반복성, 행위유형 등의 사건 구조, 그리고 성희롱 대처방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구체적인 사례 상황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12개 사례별로 성희롱 대처방안의 남녀 차이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초 통계 분석 및 집단 간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앞의

분석에서 나타난 성별 대처방안의 차이가 사건의 구조 가운데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 즉 성희롱 대처방안 선택에 관여하는 구조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범주형 회귀분석(categor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11.0을 이용하였다.

결 과

상담 의향

여자 대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학 내의 공식 기구의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희롱은 문제의 성격 상 드러내 놓고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경우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거나 그냥 참고 넘어감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장기간 지속시키거나 확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건의 구조가 서로 다른 12개의 사례를 제시한 후, 그러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학 내 공식 기구의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의향을 1-5점 사이에 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상담의향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거의 모든 유형에서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남녀의 상담 의향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언어형과 신체형 사례로 구분하여 각각의 성별 차이를 그림 1의 그래프로 다시 정리해 보았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성희롱에 대한 상담의향의 평균은 남녀 모두 언어형 사례에 대한 평균이 3점 이하로 상담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와 선배의 일회적 신체형 성희롱 사례를 제외한 모든 신체형 사례의 평균이 3점 이상으로 상담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형 성희롱에 비해 신체형 성희롱에 대해 상담할 의향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런데 대학생들의 상담의향의 평균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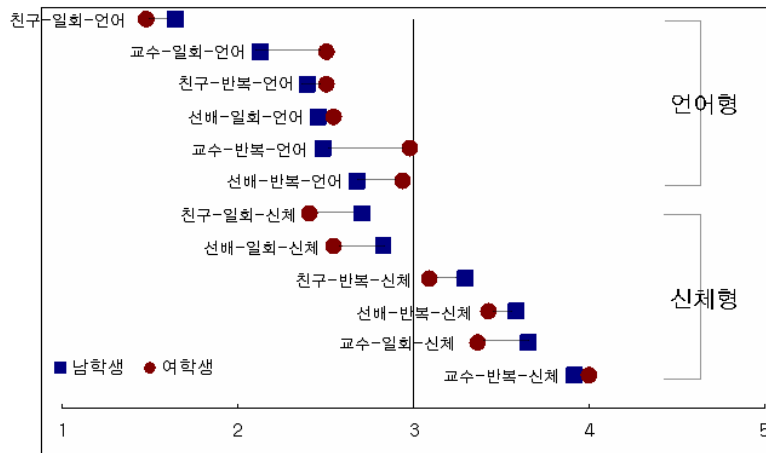


그림 1. 상담의향의 남녀 차이

로 비교한 결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언어형 성희롱의 경우에는 여학생의 상담 의향이 더 높은 반면에 신체형 성희롱의 경우에는 오히려 남학생의 상담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희롱에 대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상담의향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여학생들이 신체형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남학생보다 상담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즉, 주로 신체형 사례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하여 상담의향이 높고 언어형 사례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상담의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성희롱 사건 유형별로 성별에 따라 상담을 신청하거나 상담소의 도움을 받을 의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학 내 성희롱 상담소의 내담자 접근성 확보에 유용한 시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남녀 대학생들의 성희롱 문제에 대한 상담의향이 사건의 구조적 요인들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상담의향에 미치는 사건의 구조적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남·여 대학생들의 상담의향의 차이에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먼저 성희롱 상담의향에 관한 범주형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남학생이 19.3%, 여학생이 17.6% 정도로서, 이 모형의 설명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리고 사건의 구조적 요인 3가지의 영향력 계수는 먼저 관계유형의 경우 남학생은 .128, 여학생은 .357이며, 반복성의 경우 남학생은 .171, 여학생은 .340, 행위유형의 경우 남학생은 .701, 여학생은 .303으로서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상담의향에 관해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차

표 1. 상담 의향에 대한 범주형 회귀분석 결과

	R제곱	수정R제곱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남	수정모형	.193	.193	1414.84	4	353.71	437.99	.000
	오차			5917.16	7327	.808		
	전체			7332.00	7331			
여	R제곱	수정R제곱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수정모형	.176	.175	1962.85	4	490.71	594.99	.000
	오차			9213.15	11171	.825		
			11176.00	11175				
영향력								
성별	관계유형		반복성		행위유형			
남	.128		.171		.701			
여	.357		.340		.303			

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남학생들은 상담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때 주로 행위유형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당사자의 관계유형을 크게 고려하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평소에도 그런 행위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해왔는지 또한 행위유형까지 폭넓게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성희롱에 대한 상담의향을 결정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는 성희롱 대처방안의 성별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성희롱 상담과 문제 해결 과정에 대단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상담 의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언어형 성희롱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하여 학내 공식 기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향이 큰 반면에, 신체형 성희롱에 대해서는 오히려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하여 상담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상담 의향에 미치는 사건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들은 관계유형, 반복성, 행위유형으로부터 각각 35.7%, 34%, 30% 정도 영향을 받는 반면에, 남학생들은 각각 12.8%, 17%, 70%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남학생들은 주로 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관계 유형 특히 상대방이 교수나 선배일 경우 상담 의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수준

여자 대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대응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건의 구조가 서로 다른 12 개의 사례를 제시한 후, 이 사례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에서 제시한 5가지의 대응수준은 대학 내 성희롱 사건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수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서, 비록 응답 형태는 불연속적인 범주처럼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연속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여학생의 대응 수준을 남학생과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의 사례에서 성별로 유사한 경향을 보

표 2. 대응수준의 남녀 차이

구분		①	②	③	④	⑤	총계
남학생	언어형	25.64%	56.36%	13.80%	3.11%	1.09%	100%
	신체형	7.53%	53.74%	28.48%	7.12%	3.14%	100%
여학생	언어형	22.95%	51.10%	15.66%	9.39%	0.90%	100%
	신체형	11.66%	52.40%	24.09%	9.83%	2.03%	100%

- ① 불쾌하지만 참고 넘어간다.
- ② 본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해결한다.
- ③ 상담기관(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 중재나 도움을 요청한다.
- ④ 사건을 공론화시켜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 ⑤ 고소·고발하여 법적으로 해결한다.

이고 있었다. 이러한 남녀의 대응 수준 경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언어형과 신체형 사례로 구분하여 각각의 성별 대응수준 양태를 표 2로 다시 정리해 보았다.

표 2의 응답 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본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 그리고 응답의 분포를 보면 주로 언어형 성희롱은 불쾌하지만 참고 넘어가거나 본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신체형 성희롱은 상대적으로 대응 수준이 높은 응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체형 성희롱 사례에 대해서 남녀 모두 언어형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남녀 대학생 모두 신체형 사례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 넘기기 보다는 적어도 본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 해결을 시도하거나 또는 대학 내 공식 기구(예를 들면 성희롱 상담소)에 중재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언어형 사례에 대해서는 신체형과는 달리 불쾌하지만 참고 넘어가거나, 본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언어형의 경우 여학생들은 사건을 공론화시켜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등 남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응 수준이 높은 반면에, 신체형의 경우 대응 수준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거나 오히려 남학생의 대응 수준이 더 적극적인 응답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성희롱 사건 유형별로 성별에 따라 대응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희롱 현상의 특징인 인식의 모호 영역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수준을 결정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남녀 대학생들의 성희롱에 대한 대응 수준이 사건의 구조적 요인들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성희롱에

표 3. 대응수준에 대한 범주형 회귀분석 결과

	R제곱	수정R제곱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남	수정모형	.136	.135	994.339	4	248.59	287.39	.000
	오차			6337.66	7327	.865		
	전체			7332.00	7331			
여	R제곱	수정R제곱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수정모형	.173	.172	1926.42	4	481.61	581.86	.000
	오차			9230.58	11152	.828		
			11157.00	11156				
영향력								
성별	관계유형		반복성		행위유형			
남	.334		.166		.500			
여	.734		.208		.058			

대한 대응수준을 결정할 때 사건의 구조적 요인들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남녀 대학생들의 대응수준의 차이에 미치는 사건 요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먼저 성희롱 대응수준에 관한 범주형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남학생이 13.6%, 여학생이 17.3% 정도였으며, 이 모형의 설명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리고 사건의 구조적 요인 3가지의 영향력 계수는 먼저 관계유형의 경우 남학생은 .334, 여학생은 .734이며, 반복성의 경우 남학생은 .166, 여학생은 .208, 행위유형의 경우 남학생은 .500, 여학생은 .058로서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대응 수준에 관해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남학생들은 성희롱에 대한 대응수준을 생각할 때 주로 행위유형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당사자의 관계유형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 남학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행위유형은 오히려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학생들은 가해자가 평소에 그러한 성희롱 행위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지속해왔는지를 남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이는 성희롱에 대한 대응수준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지를 보여주며,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응수준이 왜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요약하자면, 여자 대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대응 수준을 남자 대학생과 비교한 결과, 언어형 성희롱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수준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큰 반면에, 신체형 성희롱에 대해서는 대응 수준이 유사하거나 오히려 남학생이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수준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조차 나타내었다. 그리고 성희롱에 대한 대응 수준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사건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들은 관계유형, 반복성, 행위유형으로부터 각각 73.4%, 20.8%, 5.8% 정도 영향을 받는 반면에, 남학생들은 각각 33.4%, 16.6%, 50.0%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남학생이 주로 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관계 유형 특히 상대방이 교수인 경우 대응 수준을 더욱 강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강도

여자 대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건의 구조가 서로 다른 12개의 사례를 제시한 후, 이 사례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에서 제시한 5가지의 처벌수준은 대학 내 성희롱 사건의 상담이나 해결 과정에서 사용되는 실제적인 벌의 형태를 수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비록 응답 형태는 불연속적인 범주처럼 제시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방향으로 연속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여학생의 처벌강도를 남학생과 비교해 본 결과를 표 4에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일반적으로 언어형보다 신체형 성희롱에 대해서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친구의 일회적

표 4. 처벌강도의 행위 유형별 남녀 차이

구분		①	②	③	④	⑤	총계
남학생	언어형	21.58	53.27	18.52	5.07	1.55	100%
	신체형	5.46	43.26	29.60	14.68	7.01	100%
여학생	언어형	8.11	46.01	31.27	10.73	3.87	100%
	신체형	3.30	37.22	32.72	19.68	7.08	100%

- ① 아무런 처벌이 필요 없다
- ② 사과가 필요하다
- ③ 사과와 가해자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 ④ 사과와 가해자 교육 이수와 심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 ⑤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인 언어형, 선배의 일회적인 언어형, 교수의 일회적인 언어형, 친구의 반복적인 언어형, 선배의 반복적인 언어형, 교수의 반복적인 언어형 성희롱 사례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인식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섯 가지 사례의 경우에 대하여 남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처벌이 필요없거나 사과 정도만

하면 된다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여학생들은 사과와 가해자 교육 그리고 심리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형 성희롱 사례에 대해서 남녀 모두 언어형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사과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

표 5. 처벌강도에 대한 범주형 회귀분석 결과

		R제곱	수정R제곱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남	수정모형	.149	.148	1090.89	4	272.722	320.17	.000
	오차			6241.11	7327	.852		
	전체			7332.00	7331			
여	수정모형	.160	.159	1782.54	4	445.63	530.10	.000
	오차			9378.46	11156	.841		
	전체			11161.00	11160			
영향력								
성별	관계유형			반복성			행위유형	
남		.112		.209			.679	
여		.437		.399			.164	

학생이 조금 더 높지만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언어형 사례에서는 남녀의 패턴이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아무런 처벌이 필요없다는 ①번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②번 응답의 비율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처벌수준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③번 이상의 응답에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다음으로 남녀 대학생들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강도의 수준이 사건의 구조적 요인들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표의 결과에 의하면, 먼저 남학생의 성희롱 가해자 처벌강도에 관한 범주형 회귀분석 모형은 남학생들의 판단을 14.9% 설명하고 있으며,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학생의 성희롱 가해자 처벌강도에 관한 범주형 회귀분석 모형은 여학생들의 판단을 16.0% 설명하고 있으며, 이 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리고 세 가지 자극 특성의 영향력 계수가운데 먼저 관계유형의 경우 남학생은 .112, 여학생은 .437이며, 반복성의 경우 남학생은 .209, 여학생은 .399, 행위유형의 경우 남학생은 .679, 여학생은 .164로서 이 결과들도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대학생들의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도 지각에 미치는 사건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관계유형이 남학생은 11.2%, 여학생은 43.7% 정도 영향을 미치며, 반복성은 남학생 20.9%, 여학생이 39.9%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행위

유형은 남학생이 67.9%, 여학생이 16.4%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남학생들은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강도를 생각할 때 주로 행위유형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유형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 남학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구체적 행위 유형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여학생들이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관계유형에 대해 남학생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학생들은 가해자가 평소에 그러한 성희롱 행위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지속해왔는지를 남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안과 그러한 대처방안에 영향을 주는 사건의 구조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안 분석을 기초로 하여 대학 내 성희롱의 성격과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상담 전략을 탐색하는데 주는 시사점을 규명하고 하였다. 먼저 대처방안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담 의향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하여 학내 공식 기구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클 것이라는 상식과 달리, 언어형 성희롱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의 상담 의향이 큰 반면에, 신체형 성희롱에 대해서는 오히려 남학생들의 상담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들은 성희롱

에 대해 상담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때 주로 행위유형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가장 크게 고려하며 그밖에 행위 유형이나 반복성 정도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희롱을 넓고 다양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또한 남녀 사이의 인식 상의 모호 영역이 형성되는 원인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신체적 유형의 성희롱에서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남학생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피해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김정인, 2000; Gutek & Koss, 1993), 또한 성희롱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행동적 자기비난'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성희롱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행동적 자기비난'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은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보다 다른 사람과 의논하거나 공식 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성희롱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은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보다 피해 경험 이후의 대응 행동이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향성은 특히 신체형 성희롱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enson & Gutek, 1982).

다음으로 대응 수준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언어형 성희롱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고려하는데 반하여, 신체형 사례에 대해서는 남녀가 유사한 대응수준을 고려하거나 오히려 남학생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분석

한 결과, 남학생들은 성희롱에 대한 대응수준을 생각할 때 주로 행위유형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당사자의 관계유형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 남학생이 가장 크게 고려하는 행위 유형은 오히려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들은 가해자가 평소에 그러한 성희롱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계속해 왔는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처벌강도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들은 처벌강도에서 주로 행위유형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유형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 남학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행위 유형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도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며, 왜 남학생과 여학생이 성희롱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다르게 상정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이는 성희롱 사건의 대처에 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도를 남녀가 서로 달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성희롱 인식의 모호 영역(gray area)이 형성되는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희롱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 전략을 구상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남녀 대학생들이 성희롱 문제에 대처하는 일련의 과정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성희롱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남녀 간에 존재하는 공통 인식의 부재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성희롱 상담은 그림 2에 나타나 있듯이 한편으로는 내담자(가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여, 성희롱의 성격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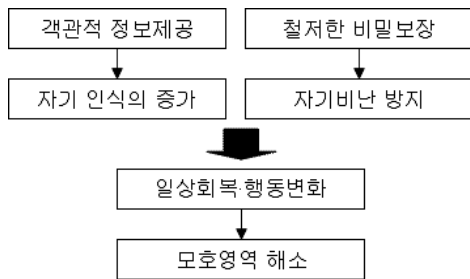


그림 2. 성희롱 상담 전략

그리고 피해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담자의 자기 인식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비밀보장을 철저히 함으로써 내담자(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수치심이나 행동적 자기 비난 성향을 억제함으로써 내담자(피해자와 가해자)의 일상 회복과 행동 변화를 동시에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성희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인식의 모호영역을 해소하는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강현화·고은영 (2001). 성차에 따른 여성의 역할과 성희롱에 대한 인식차이 비교연구. *학생생활연구*, 6, 65~82.

김양희 (1995). 성희롱: 경험과 인식, 그리고 정책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17~32.

김정인·최상진·박정열 (2002). 성희롱 행위에 대한 대처인식 및 가용자원의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2), 53~75.

김정인 (2000). 성희롱행동의 이해와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교육인적자원부 (2006). 대학의 성희롱 고충처

리 기구 현황(미발표 집계). 교육인적자원부.

서울대학교성희롱·성폭력상담소 (2004). 2003년 대학생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

윤영민 (2002). 성희롱의 정의: 사회적 합의는 가능한가? 한양대학교 성폭력 상담소 성희롱의 합리적 기준 설정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1~27.

이미정 (2002). 사례분석을 통한 성희롱 기준 모색. 한양대학교 성폭력 상담소 성희롱의 합리적 기준 설정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1~17.

진정희 (2003). 성희롱 사건 해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대적 성차별주의의 영향.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하혜숙·김보명 (2005).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상담을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

Frazier, P. A., Cochran, C. C., & Olson, A. M. (1995). Social science research on lay definitions of sexual harass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51(1), 21~37.

Gelso, C., & Fretz, B. (2001). *Counseling psychology (2nd)*. NY: Harcourt, Inc, 586~593.

Gruber, J. E. (1992). *The sexual harassment experiences of women in nontraditional jobs: Results from cross-national research. Proceeding of the First National Conference on Sex and Power Issues in the Workplace*. Bellevue, WA: March, 1992.

Gutek, B. A, Morasch, B. & O'Connor, M. (1995). The empirical basis for the reasonable woman standard. *Journal of Social Issues*, 51(1), 151~166.

Gutek, B. A., & Koss, M. P. (1993). Changed

- women and changed organizations: Consequences of and coping with sexual harass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 28~48.
- Gutek, B. A., Morasch, B. & Cohen, A. G., (1983). Interpreting social-sexual behavior in a work sett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30~48.
- Naomi M. Dogan (2000). *Toward a theory of sexual harassment: Giving voice to women students' experiences*, Doctoral Dissertation (counseling psychology),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308~343.
- Powell, G. (1983). Definitions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ttention experienced. *Journal of Psychology*, 113(1), 113~117.
- Reese, L. A., & Lindenberg, K. E. (1999). *Implementing sexual harassment policy: Challenges for the public sector workplace*. Sage Publications.
- Stockdale, M. S. (1996).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learn about sexual harassment*. In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Ed.). Thousand Oaks, CA: Sage.
- Thacker, T. A., & Gohmann, S. F. (1993). Male/female differences in perceptions and effects of hostile environment sexual harassment: "Reasonable" assumptions? *Public Personnel Management*, 22, 461~472.
- York, K. M. (1989). Defining sexual harassment in work places: A policy-capturing approac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2, 830~850.

원 고 접 수 일 : 2007. 5. 3
 수정원고접수일 : 2007. 7. 15
 게재결정일 : 2007. 8. 5

Sexual Harassment Coping Style of University Students

Hye-Suk Ha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sex differences in the ways that sexual harassment is handled by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included 611 male and 936 female students from seven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other provinces.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based on 12 cases of sexual harassment with differing characteristics. Sexual harassment coping styles included tendency to seek counseling, level of countermeasure and degree of punishment. Fe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han male students to seek counseling in response to verbal sexual harassment. 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han female students to seek counseling for physical sexual harassment. Regarding countermeasures,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showed a strong tendency to resolve matters individually through steps such as demanding an apology. However, fe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confront harassment officially and proactively. Finally,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tended to demand an apology or require attendance of a correction program for verbal sexual harassment, and attendance of a correction program, compensation, and punishment for physical sexual harassment. This study presents useful suggestions for both the theory and practice of sexual harassment counseling with female and male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sexual harassment counseling, sexual harassment coping style, gray area of sexual harassment